

무인년 하안거 해제법어

“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遵無心與境... 空生依舊逐物이로다. 이 자리에는 본래 마음과 경계가 없거늘

를 찾기 위한 모든 방법이 진리하고 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이나 모든 가식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공연스레 중생이 옛을 의지하여 어리석게 경계를 좇도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오늘 해제를 하게 되는데, 공공 뚝고 얽어매인 것을 푸는 날입니다. 툇다고 하여 실제로 뚝뚝 끊었던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금욕을 하다가 행동을 자기 의지대로 하게 한다는 것인데 공부하는 이들은 결제나 해제에다 고달라지 않습니다. 생사에도 초월하는데 결제, 해제를 초월 못하셨습니까?

萬里青天(만리청천) 雲去雨來(운거우래) 空山無人(공산무인) 水流花開(수류화개) 가없이 푸른하늘에/구름 흘러 비 내리니 /인적없이 텅빈산에/물 흐르고 꽃이 피네

앉아서 참선하고 화두를 참구하는 것은 정신을 모으는 것이고 다른 망상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화두가 마치 쇠뿔과 같아서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말뚝을 박고 거기에 붙들어 매놓으면 길이 들어요. 처음에는 애가 삭지 않아서 나무대고 해도 오래 되면 마음이 차분해져서 조용하니 길이 듭니다. 우리 마음의 소를 길들이는 데도 똑 그와 같아요. (중략)

우리집이 친 의가를 포함해 모두 41명이 출가를 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지중한 불연의 연원은 외증조모님부터 시작됩니다. 외증조모님은 술하에 3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술타는 공작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로 실을 짠데 거의 독점적이었던 관계로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매일 그날날 이익분배를 했는데 수익을 4등분해서 1등분은 외증조모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증조모님이 아들집에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할당을 했습니다. 즉 가장 오래 머무른 아들한테 제일 많이 주는 식이었지요. 그러자 서로 모셔가려고 야단이었습니다. 자연히 자식들간에도 내왕이 잦아지고 우애가 돈독해질 수밖에요. 주변에 효심이 소문날 정도였고 외증조모님의 3형제 자랑도 늘어만 갔습니다.

사람도 공한 것이고 법도 또한 공한 것이며 원과 상이 본래 한가지입니다. 썩었다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서 움직이고 눈에 보이는데 형상이라고 하지마는 그건 잠시 동안 있는게지 필경에 가서는 없고 공한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형색이나 모든 걸 만들어서 다 집행하고 시행하는걸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진리를 찾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중략)

그런데 하루는 관옥같은 얼굴의 비구니스님 한분이 탁발을 왔다가 집을 나서면서 “가정에 너무 집착하면 업이 된다”고 하셨어요. 당시 충칭도에서는 ‘업’이라는 말이 최대의 욕이었는데 업은 곧 구렁이를 의미했지요. 외증조모님은 그말에 충격을 받고 심리를 쫓아가서 스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와서는 업을 피할 방법을 물었지요. 그 스님은 밤새 좌선만 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문을 열어 “업이 되기 싫으면 자식자랑 하지말고 문밖출입을 삼가며 ‘나무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라”고 말씀해주었습니다. 이후 외증조할머니는 바깥출입을 삼가고 돌아가실 때까지 30년동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신통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들더러 “오늘은 불기운이 있으니 공장을 돌리지 말고 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나니 다음날 그날 열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를 시집보낼 때도 외할아버지를 부르시더니 북쪽으로 30리 가면 연안 김씨집안에 연봉이 되는 젊은이가 있으니 혼사를 추진하라고 하셨어요. 외증조모님이 돌아가시자 집주인이 백아처럼 환하게 7일간이나 방광(放光) 했는데 이 기이한 현상을 본 가족과 친지들이 발심을 하게 된것입니다. (일타스님 일가 41명의 출가는 본지 98호에 자세히 나와있음)

“해제는 공부를 靜에서 動으로”

보성스님 (조계총림 방장)

오늘은 三夏安居 해제일이라 九月前 結制上堂 때 말했지만 일대사를 마치지 못한 남자에게 해제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

아니고 靜적인 공부를 動的인 공부로 바꾸는 것이고 回小向大의 回向으로 向上의 길을 삼는 것이다.

단 行脚하면서 선지식을 찾아 밟고 空機講益하고 先難道伴을 만나 수행경험과 心身痲痺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효봉노사께서 가야총림의 방장주대를 받으시고 송광사 삼일선원을 떠나시면서 이런 송을 읊으셨다. 我來松廣今年 國老懷中安食眼 曹溪一別緣何事 欲作人天大福田 하셨다. 이와같이 해제는 공부를 쉬는 것이

古人的 頌句에 百戰老卒知佛法하고 再來菩薩說家常이라 하였고 또 雲門禪師는 學道須是鐵漢이라야 著得心頭病 辦하리라 하셨으니 금일 해제대중은 고인의 行李處를 잘 살피서 期成正覺 하야 勇猛不退이다. 打拄杖一下云 靑山은 元不動한데 白雲은 自去來로다 靑山은 不動하되 元無不動相이오 白雲은 去來하되 元無去來相이로다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 삶 돌이켜 보면

일타스님 (은혜사 조실)

萬里青天(만리청천) 雲去雨來(운거우래) 空山無人(공산무인) 水流花開(수류화개)

우리 어머니 역시 외증조모님의 영향을 받아 불심이 돈독했습니다. 선친 역시 불심이 깊었는데 40대 초반에 어머니와 함께 만공스님을 찾아가 스님께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 글씨를 받아 집에 가져와서는 방벽에다 붙여놓고 틈나는대로 화두를 들고 좌선을 하셨답니다. 서로 자신이 누워자는 벽쪽에다 만공스님의 글을 땀다 붙였다 하면서 경쟁적으로 공부를 하셨지요. 두분은 아마도 진상에 우에깊은 도반이셨을 겁니다.

가없이 푸른하늘에/구름 흘러 비 내리니 /인적없이 텅빈산에/물 흐르고 꽃이 피네

나 역시 어릴때부터 불교가 낯설지 않았습니니다. 막내외삼촌이 일본 명치대학에 유학한 엘리트였는데 그 외삼촌이 저한테 ‘일체유심조’란 애걸 처음으로 들려줘 조그만 목판에다 새겨놓는 수시로 외웠습니니다. 한번은 뛰어가다 넘어져서 무릎을 심하게 다쳤는데 이를 악물고 일체유심조를 외우면서 마음도리로 돌렸더니 이내 아픔이 사라졌던 경험이 있습니니다.

우리집이 친 의가를 포함해 모두 41명이 출가를 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렇게 지중한 불연의 연원은 외증조모님부터 시작됩니다. 외증조모님은 술하에 3형제를 두었는데 모두 술타는 공작일에 매달려 있었습니니다. 일본에서 들어온 기계로 실을 짠데 거의 독점적이었던 관계로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매일 그날날 이익분배를 했는데 수익을 4등분해서 1등분은 외증조모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증조모님이 아들집에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 할당을 했습니다. 즉 가장 오래 머무른 아들한테 제일 많이 주는 식이었지요. 그러자 서로 모셔가려고 야단이었습니다. 자연히 자식들간에도 내왕이 잦아지고 우애가 돈독해질 수밖에요. 주변에 효심이 소문날 정도였고 외증조모님의 3형제 자랑도 늘어만 갔습니니다.

그런데 하루는 관옥같은 얼굴의 비구니스님 한분이 탁발을 왔다가 집을 나서면서 “가정에 너무 집착하면 업이 된다”고 하셨어요. 당시 충칭도에서는 ‘업’이라는 말이 최대의 욕이었는데 업은 곧 구렁이를 의미했지요. 외증조모님은 그말에 충격을 받고 심리를 쫓아가서 스님을 다시 집으로 모셔와서는 업을 피할 방법을 물었지요. 그 스님은 밤새 좌선만 하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말문을 열어 “업이 되기 싫으면 자식자랑 하지말고 문밖출입을 삼가며 ‘나무아미타불’을 지극정성으로 염송하라”고 말씀해주었습니다. 이후 외증조할머니는 바깥출입을 삼가고 돌아가실 때까지 30년동안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신통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들더러 “오늘은 불기운이 있으니 공장을 돌리지 말고 물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아나니 다음날 그날 열집에 불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를 시집보낼 때도 외할아버지를 부르시더니 북쪽으로 30리 가면 연안 김씨집안에 연봉이 되는 젊은이가 있으니 혼사를 추진하라고 하셨어요. 외증조모님이 돌아가시자 집주인이 백아처럼 환하게 7일간이나 방광(放光) 했는데 이 기이한 현상을 본 가족과 친지들이 발심을 하게 된것입니다. (일타스님 일가 41명의 출가는 본지 98호에 자세히 나와있음)



- 1929년 충남 공주 생
1942년 통도사에서 고경스님을 은사로 득도
1949년 통도사 강원 대교과 졸업
1983년 해인사 주지
1993년 조계종 전계대화상
현재 해인총림 울주·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저서: <사미물> <법공양문> <범명경대강좌> <기도> <생활속의 기도법> 등

“생활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물건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출가한 이후로도 나는 여러번의 기도를 통해 신비한 체험을 하게되고 정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염불기도 단식기도 절수련등 기도를 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심신이 정화되는 효과가 있어 화두참선에 들어가기전에 한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일상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면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려면 순간순간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만나는 사람이 나, 대하는 물건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됩니다. 젊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그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그리하여 두두물물이 돌아닌 도리로 돌아가게 한다면 따로 기도시간을 낼 필요도 없게 됩니다. 외삼촌이 또 신묘장구대다라니도 가르쳐주어 마치 노래배우듯이 어렵지 않게 익혔어요. 또 <천수경>도 다 외웠습니니다. 한번은 소풍가서 장기자랑을 하게 되었는데 학생들이 그걸 외워보라고 했요. 그래서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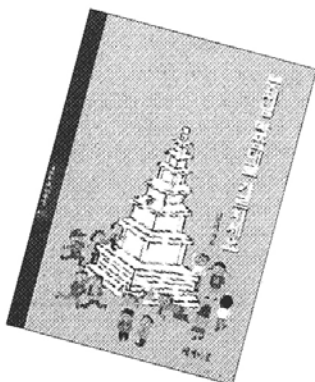
동방결도량 이세남방특청량 삼해서방... 했더니 장내가 온통 폭소도가니로 변했어요. 그때 스님이란 별명도 얻었지요. 14세되던 해 초등학교를 마치고 아버지는 만공스님 회상으로 입산하시고 나는 외할아버지 추금스님의 손을 잡고 양산 통도사로 들어가 고경스님을 은사로 사 받하게 됩니다.

고경스님은 26세때 불보종할 통도사의 대강백이 되실 정도로 경학에 밝으신 분이므로 대강백이 되어서도 빨래나 청소를 직접 하시는 바람에 간혹 강백실을 찾은 손님들이 청소종인 고경스님을 시자로 착각, 스님의 행방을 묻는 일도 종종 있었지요. 스님은 또 노모가 늙어 홀로 지내시기 어렵게 되자 통도사로 모셔와 조식으로 문안드리며 지극정성으로 봉양했습니다. 육십이 다 되어서도 팔십노모를 위해 손수 김도 굽고 반찬도 만들어 드리는 등 효도가 지극하셨어요. 어머니께 염불수행할 것을 깨우쳐 ‘나무아미타불’ 염불속에서 편히 돌아가실수 있게 했

주머니속 대장경 - 502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붓다의 교육관, 그리고 ... 미래 교육의 열쇠



교육 현실의 병폐를 뼈저리게 통감하는 모든 이들에게 권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황폐한 우리의 교육 현장에 던지는 부처님의 음성 - '천상천하 유아독존'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릇대로 베풀어 주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대기실업'이라고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고 ' 획일화의 칼'을 들이대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실은 인간에 대한 무지막한 횡포에 가깝다.

김종서 지음/ B6 182쪽 /값 4500원여시아문 펴냄